

보도시점 수신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2025. 4. 16.(수)

유튜브 뮤직 안건은 철회되지 않았으며, 동의의결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
* (매일경제 4.15.) “공정위,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”,
(조선비즈 4.15.) “유튜브 뮤직 끼워팔기’ 구글,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” 기사 관련

< 보도 내용 >

- “공정위, 유튜브 제재 대신 타협 선회”(매일경제), “유튜브 뮤직 끼워팔기’ 구글, 제재 피해 자진 시정 수순”(조선비즈) 제하의 기사에서,
 - 공정위 전원회의에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심의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철회되었고,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는 다음 달로 잠정 예정돼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공정위 입장 >

- 유튜브 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철회된 바 없습니다.
- 현재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	책임자	과 장	편유림 (044-200-47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혜 (044-200-4743)
			조사관	유푸름 (044-200-4749)